

업계 공동 대처로 조류인플루엔자 공포 막아낸다



조류인플루엔자 과잉보도로 양계산물 출하에 어려움을 겪자 농가들이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최 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철새에 의한 감염이 확실시되면서 정부에서도 지난 14일 조류인플루엔자 예보를 발령하고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세워 국가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중국, 태국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금년부터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지역(루마니아, 터키, 그리스, 영국 등)으로 확산되는가 하면 철새의 이동경로인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번져나갈 추세를 보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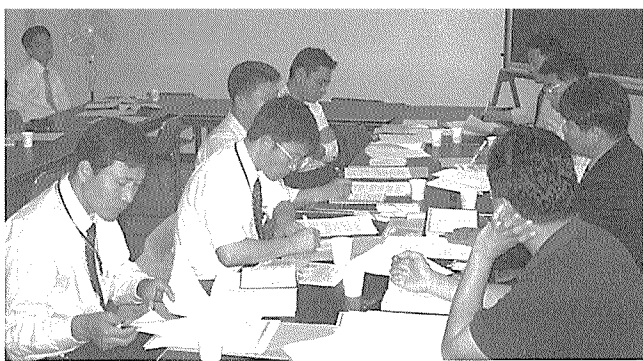
다. 우리나라 역시 조류인플루엔자로 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전국이 떠들썩하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도가 나가면서 소비가 20~30% 급감하고, 산지에서는 닭출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농가에서 출하하는 생산비를 보면 육계의 경우 kg당 900원으로 생산비선인 1,200원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계란의 경우에도 특란기준 개당 70원 정도로 생산비선인 85원보다 적자를 보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산란계 노계가격은 수당 50원으로 하락하면서 거의 출하길이 막혀있는 실정이다. 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일련의 대응과정과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들어보았다.

1 과잉보도의 발단과 전개

1) 안명옥 의원의 가장 시나리오 발표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추세에 있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변종 독감 피해자 추정은 불가능하지만 각국에 최대 740만 명의 희생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경고가 나오면서 문제는 불어졌다. 언론의 특성상



본회는 지난 10일 시진핑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련단체와 연대

이는 재앙을 불러올 대단한 뉴스거리였기 때문에 앞다투어 보도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으로부터 시나리오 문건이 기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양 사태는 확대되었다. 본 시나리오 문건은 지난 2004년 1월 국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창궐할 당시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 문건이 유포되어 문제를 더욱 확산시켰다. 본 시나리오에는 국내 감염예상 환자는 1000만명, 입원환자 100만명, 사망자 3만명이라는 ‘재앙(災殃)’을 예고한 바 있다.

2) 이종욱 WHO 사무총장의 발언

우리나라 사람으로 WHO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욱 총장이 지난 11일 조류인플루엔자가 사스보다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술선수범 공포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결국 13일 국내에 방한까지 하면서 모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릴 사람) 몇백만명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특히 겨울이 오면 계절적 독감이 유행할 것이고, 이 독감이 조류인플루엔자와 결합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계절적 독감을 막기 위해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발생할 때 수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실제인양 확산을 심어주게 되었다.

3) 1918년 스페인 독감(H1N1) 언급

지난 1918년 환경이 열악할 당시 스페인에서는 살인독감으로 약 5천만명의 사람이 목숨을 거뒀다. 세계 권위있는 과학전문지인 사이언스와 네이처지는 최신호에서 당시의 스페인 독감과 최근의 조류인플루엔자를 비교한 내용이 게재되었는데 모 언론사에서 마치 당시의 독감이 현재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것처럼 오보를 내면서 사태를 더욱 부채질 했다.

당시에 발생한 살인독감은 유전자형이 H1N1으로 현재의 H5N1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이 잡지에 실려있으며, 두 독감바이러스를 비교하는 대목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 2차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거의 90여년이 지난 지금 방역시설과 치료약 등 과학이 발달된 현재의 수준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받아들일 수 있다.

4) 혐오스런 내용 보도

지난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당시 언론사에서는 닭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내보냈다. 이번에는 이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모 방송사에서는 베트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사람의 영정을 내보내다가 하면 닭들에게 직접 소독약을 살포하는 장면 등을 내보내면서 양계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생닭으로 유통하는 베트남 등 동남아와는 우리나라 유통상황이 전혀 다르다

는 것을 망각한데서 나온 무지의 발상이다.

5) AI 치료제 타미플루 파동

타미플루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시 증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먹는 치료제이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발생 초기에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에게 타미플루를 대거 투여하면 확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미플루가 유일한 치료제이자 예방약인 셈이다. 타미플루는 다국적제약회사 로슈가 유일하게 제조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타미플루를 먹는다고 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내에는 약 70만명분의 타미플루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로슈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타미플루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시 확실한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모 신문에서는 이누루엔자는 유전자형이 자주 변화되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는가 하면 대만 등 몇몇 나라에서는 완벽한 타미플루 제조에 성공했다는 내용도 보도된다. nrso에서도 물론 2-3곳에서 배진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미국에서 타미플루 확보에 혈안이 된 것처럼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런 와중에 양계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2. 본회 및 관련단체들의 대처

1) 긴급대책본부 설치, 방송 자제요청

본회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과잉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10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대책본부를 본회 사무실에 설치함과 동시에 관련 단체중 제일 먼저 각 방송국에 자제요청을 하였다.

방역조류인플루엔자 비상대책본부는 양계협회 최준구 회장을 본부장으로 각 도지회, 시군지부 및 AI대책위원회를 두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며, 전무를 실장으로 두고 대화협력 및 위원회 운영반(담당 김동진 홍보팀장), 농가홍보반(담당 조종수 업무지원팀장), 소비대책반(담당 황일수 자조금사업팀장), 수급조절반(담당 이보균 경영지도팀장) 등 4개 반으로 나누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토요일에도 오후 5시까지 2인 1조로 상황대기하고 있으며, 만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경우 농림부 직원 파견은 물론 체계적인 본부 상황실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2) 관련단체 협의회 구성 공동대처

본회는 물론 농협, 계육협회, 오리협회, 계란



양계인들은 지난 17일 닭을 실은 차를 앞세워 국회 항의 농성을 벌였다.

유통협회, 치킨외식산업협회, 토종닭연합회는 지난 13일과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논의하였다. 13일 회의에서는 14일 정부에서의 예보발령을 앞두고 가금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함께 홍보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방송자제를 거듭 천명하였다. 그리고 모든 활동은 공동명의로 연대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18일에는 각 방송사를 찾아가 항의방문과 정확한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키로 하였다.

3) 질병관리본부, 국회 항의 방문

이번 사태로 가장 피해가 큰 토종닭 연합회에서는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를 찾아가 농가의 입장을 설명하고 시나리오 유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러나 단지 국회에서 요구해 자료를 넘겨줬다는 떠넘기기식 답변외에는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고, 다만 소비홍보 활동을 전개할 경우 함께 노력해 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14일, 17일은 국회를 방문하여 농가의 절실한 상황과 시나리오 발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계인들은 적체된 토종닭 전량 원가 수매와 대책없이 발표된 질병관리본부장과 안명옥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토종닭연합회에서는 이어 지난 17일 닭을 실은 차를 앞세워 국회에 항의방문을 시도하였으며, 14일부터 18일까지 각 방송사에 1인 시위를 하면서 농가의 속타는 마음을 호소하였다.

4)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농가 현실 호소 협회에는 많은 언론사에서 농가소개 및 인

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본회는 원천적으로 방송을 내보내지 말아야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최대한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바른 내용을 함께 보도하는 것이 농가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방송사를 선별하여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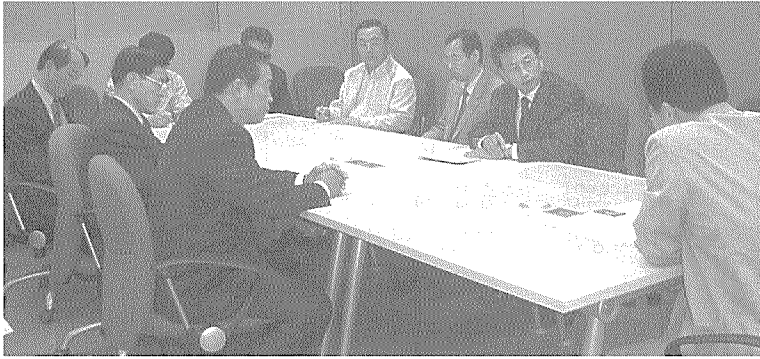
지난 15일 MBC뉴스데스크에는 본회 회장이 나서 농가의 어려움과 우리나라는 질병에 감염된 닭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켰으며, 이 밖에 서울방송 및 신문사 등에 잘못된 보도내용과 조류인플루엔자를 조류인플루엔자로 사용할 것 등을 전달 농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5) 각 방송사 항의 방문

본회를 비롯한 양계관련 단체장들은 지난 21일 KBS, MBC, SBS, YTN을 방문하여 각 방송사별 보도국장(경제부장)을 만나 과대 보도 자제를 공식 요청하였다. 이같은 방문은 지난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과잉보도에 따른 긴급 공동대책마련 회의에서 방문키로 결의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가급적 보도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현재 유통되는 양계산물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열 조리시 안전하다는 내용조차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이라는 명칭을 '조류인플루엔자로' 바꿔줄 것과 동남아 등 후진국 사례 보도를 자제하고,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동향에 대해서도 불가피



본회 장재성 육계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각단체장들은 지난 21일 각 방송국을 들며 양계인의 입장을 설명하였다.(SBS 보도국장을 만나는 장면)

지나친 경쟁보도는 본회의 수차례 보도자제 요청에도 방영은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양계산물의 소비는 이미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며, 내년 봄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불

안감에 농가에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재성 본회 육계분과위원장, 이영재 한국양계농협조합장, 현광래 양계관련조합장협의회장, 김근호 전국토종닭연합회 명예회장, 신훈진 한국오리 협회 전무, 김기원 한국계란유통협회 상무가 방문하였으나 한국계육협회의와 치킨외식산업협회는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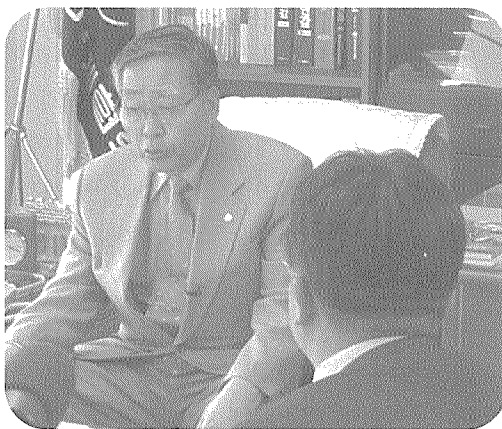
한 사정으로 보도해야 할 경우 소비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자료배경화면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안전성 위주의 내용을 꼭 병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각 방송사에서는 필요이상의 보도는 자제하고, 향후 공식명칭을 '조류 인플루엔자'로 통일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농가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함에 따라 최근 위축되어 있는 가금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918년 5,0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H1N1)가 현재의 조류인플루엔자(H5N1)와 유전자형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오보로 시작된 각 언론사의

3.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1) 방송사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농가의 어려움을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호소(MBC 뉴스데스크 지난 15일 본회 최준구회장의 인터뷰장면)

언론에서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주어야 한다. 첫째 동남아지역 등 외국에서 보호장구를 갖추지 아니한 채 닭과 오리를 살처분 또는 매몰, 수거하는 장면은 방영을 삼가야 한다. 우리나라 실정은 외국과는 전혀 다르며 만의 하나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발병하더라도 우리의 안전관리 시스템상 감염된 닭과 오리고기의 유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닭과 오리농장에서 소독약을 닭과 오리에 직접 살포하는 방역장면도 삼가 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

럼 닭에 직접 살포하면서 방역을 하는 농가는 없으며, 이럴 경우 닭의 안전성에 큰 타격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가설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방송을 자제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병된 사실도 없고 발병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를 마치 현실과 같이 방영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포만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이라는 표현은 삼가야 할 것이다. 독감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유행성 독감을 연상시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조(鳥)인플루엔자”, 중국에서는 “새의 유행성 감기(禽類感)”라고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일 단체장들의 항의방문 이후 각 방송사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대신 조류인플루엔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방송회수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 방역철저로 예방에 만전을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킨 경로는 계분이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지 않더라도 방역관리중 계분차량의 농장내 진입을 차단하고, 철저한 소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조차도 농장 내부에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채란계의 경우 1회용 종이난좌를 사용하고 절대 재사용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숙지하여 지킬 경우 절대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있을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방사로 기르는 닭은 내부시설에서 사

육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3) 농장 근무자 독감백신 권장

농장에서 닭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독감백신을 맞도록 권장하고 있다. 물론 조류인플루엔자 백신과 인간의 독감백신은 전혀 다르고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유전자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람과 사람간의 전파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당시에 단 한건의 인체 감염사례가 없었던 점도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다.

4)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를

집단 폐사가 일어나고 닭들이 이상을 느낄 경우 즉시 검역원(1588-9050) 또는 협회(02-588-7651)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 및 관리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곧바로 이동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고 양성이 확인될 경우 폐기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발생사실을 기피하는 동남아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보상비가 적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와 협회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함께 노력할 경우 조류인플루엔자는 결코 국내에 두 번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취재 | 김동진 홍보팀장
dj@poultry.or.kr

